

필리버스터 [filibuster]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견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을 가리키던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장시간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의 남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장시간의 설명, 총퇴장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모두 합법적이라는 점에서 폭력 등에 의한 방해와는 다르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폴리스패머

정지와 스팸머(politics + spammer)의 합성어로 정치적 홍보나 선동을 위해 인터넷 포털 뉴스와 SNS등을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배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단순 욕설, 메시지, 사진, 동영상 패러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배포한다. 또한, 이들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거나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한다.

인강 증후군

인강(인터넷 강의)을 수강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10대들 사이에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인강증후군에 걸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의 느린 말을 2배속으로 빠르게 돌리고 싶다거나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 일시 정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P세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P세대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P세대의 P는 애국심(patriotism), 유쾌(pleasant), 평화(power&peace), 실용(pragmatism), 개성(personality)등을 의미한다.

카칭족

최근 미국에서는 '카칭족'이란 신조어가 부상하고 있다. 카칭은 은행 현금 지급기가 열릴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로 카칭족은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꺼내듯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SNS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카칭족이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 분야를 활용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